

환경 보호하고 포인트 쌓고...“고물가 속 짹짹하네”

광주 5개 자치구 'AI 재활용품 회수 로봇' 이용객 증가세 페트병 개당 10원 적립 '쓰테크' 인기... 교통카드 등 활용

고물가에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일명 '쓰테크' (쓰레기로 돈버는 재테크의 합성어)가 광주에서 인기가 있다. 공병을 팔면 돈을 받는 것처럼 '인공지능(AI) 재활용 회수 로봇' (회수로봇)을 통해 캔이나 페트병을 돈으로 환전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또 과거 노인들이 주로 했던 재활용품 모으기를 어려운 가계 경제에 보태기 위해 주부들까지 나서고 있다.

12일 광주지역 5개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에 설치된 회수로봇은 총 63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5곳의 회수로봇이 포화상태(80~100%)를 보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고물가에 버려지는 페트병 하나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어 환경보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에서는 지난 2021년 도입과 함께 5803명이 이용했고 2022년 8218명, 2023년 916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2022년 절반 수준인 4003명이 회수 로봇을 찾았다. 서구 역시 2021년 5494명에서 2023년 7123명으로 늘었고 남구는 2021년 4461명에서 2023년 1만 3569명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회수로봇을 도입한 북구는 첫 해부터 9550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1분기만에 4280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산구는 도입 당시인 지

난해 12월 35명이 이용했지만 올해 4월까지 700명 이용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8일 찾은 광주시 북구 양산호수공원에는 회수 로봇을 이용하기 위해 주부들이 양 손에 페트병이 담긴 장바구니와 박스 등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민 이연주(여·51)씨는 집 앞 산책 삼아 호수공원에 나오면서 모아둔 페트병도 함께 들고 나온다고 "고물가에 쓰레기도 버리고 돈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웃어보였다.

이씨는 "수개월 전부터 회수 로봇 어플에 캐시비카드를 연결해 아이 등하고 교통카드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총 1만 4000원을 적립했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윤지혜(여·49)씨는 환경보호 교육을 위해 자녀와 함께 회수 로봇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집에서 깨끗이 씻어 라벨까지 벗겨온 페트병을 들어 보이며 "아이에게 페트병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한푼 두푼 모아 소소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 방법은 각자 다양했다. 집과 가까운 회수 로봇을 찾는 이들도 있었고 자동차에 페트병을 모아 서 한번에 처분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병국(45)씨는 "3주 전 타지역 여행 중에 다 쓴 페트병을 버리기 위해 쓰레기통을 찾다가 회수 로

봇을 발견한 뒤 꾸준히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호기심에 회원가입 후 기계를 이용했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걸 보니 흥미를 느끼게 됐다"면서 "차에 페트병을 담은 바구니를 싣고다니다 기계가 보일 때마다 처분하고 있다"고 했다.

회수로봇은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 또는 캐시비 카드를 어플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캔이나 페트병 하나 당 10원이 적립되며 하루 최대 300원(30개)을 받을 수 있다. 앱 내 지도로 설치된 기계의 포화 정도를 알 수 있어 방문 전 확인도 가능하다.

페트병의 경우 라벨지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캔이나 페트병 하나를 처리하는 데 5초 이상 걸리는 탓에 대기시간이 길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이용자는 "업체가 하루에 한번씩 기계에서 페트병을 수거하는데, 이용자가 많은 곳은 오전 중에 가득 차버려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단단한 페트병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뱉어내 집으로 다시 가져가기도 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어 "한사람 당 최대치인 페트병 30개를 한꺼번에 넣다보니 한 기계에 2~3명이 줄을 서서 기다릴 때는 40분까지 대기하기도 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자치단체는 회수로봇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다보니 한푼이라도 아끼려 많은 분들이 기계를 이용하시는 것 같다. 설치 대수가 많지 않고 하루 한번 수거라는 한계가 있지만 개선점을 찾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12일 시민들이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 앞에 설치된 페트병 회수 로봇을 이용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바다 불청객 '괘생이모자반' 비상대응 체제로

양식장에 들러붙어 어장 훼손... 지난해 전남·제주 8.6t 회수

전남 인근 해상에 '불청객'인 괘생이모자반이 대량으로 유입돼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과 제주도 인근에서 해경이 수거한 괘생이모자반은 총 8.6t에 달한다.

해경은 어민들과 유관기관에서 수거한 양까지 합하면 10t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괘생이모자반은 중국 등지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는 여러해살이 풀로 양식장에 달라붙어 생산량

을 저하시키고 어장 시설을 망가뜨린다. 수산물 품질을 떨어뜨리는데다 제거를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비상대응 체제 가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합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순찰 시 괘생이모자반 예방 업무를 병행하고 유입된 괘생이모자반에 대한 수거 요청시 15척의 방제정을 해상수거지원 선단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미숙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6년

미숙아를 낳아 숨지게 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 살인)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낳은 뒤 집안에 유기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빨리 출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화장실에서 30주 된 아이를 낳았다.

출산 이후 A씨는 곧바로 외출하면서 침대에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낙태약을 복용해 아동을 미숙아 상태로 낳으면서 병원에 가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신생아에게 장기간 영양공급을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7월 출범

행안부, 광주에 본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이하 트라우마센터)가 오는 7월 광주에서 문을 연다.

광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트라우마센터 본원에서 트라우마센터 출

범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5·18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광주시에 본원을 두고, 제주 4·3사건으로 광주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제주도에 본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트라우마센터 건립에는 예산 107억원을 투입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지난 4월 준공했다.

트라우마센터에는 개인·단체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이 들어섰다.

당초 트라우마센터는 5·18기념일에 맞춰 오는 18일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 이용자의 진료 기록을 정리 및 이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관이 늦춰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내서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외국인 '난민' 인정

한국에서 캄보디아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해온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계 비전문취업비자(E-9)으로 한국에 두번째 입국한 이후 캄보디아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A씨는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해산된 캄보디아 구국당(CNRP) 한국지부에 가입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각종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실질적 박해에 직면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캄보디아 독재정권이 자신이 속한

구국당을 해산하고 관련 정치인을 처벌·탄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캄보디아의 저명한 야당 정치인으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해 감시장을 받은 점, 같은 구국당 한국지부 B씨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점(2023년 6월 15일자 6면), 구국당 정치인들이 징역 20~25년의 중형에 처해졌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박해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